

Art



아트인컬처
January 2015

Annual Report

올해의 전시 & 올해의 인물
Special Interview/ 산정 서세옥

박찬경

귀신 간첩 할머니, 서울로 호출!

박찬경이 SeMA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의 총감독을 맡았다는 소식이 미술계에 전해졌을 때, 행사의 성공을 장담하는 미술인은 많지 않았다. 작가, 평론가, 영화감독으로서 그의 경력은 화려했지만, 큐레이터로서 비엔날레 규모의 국제전은 한 번도 기획해 보지 않아서였다. 작가 출신 감독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만큼, 이전 회와는 차별화된 미디어시티서울에 관한 기대도 커져만 갔다. 그는 감독 선임 후 1년 반 이상을 서울시립미술관의 사무동에 출근했다. 비엔날레가 위탁에서 미술관 직영 사업으로 바뀌면서 미술관과 더욱 긴밀하게 움직여야 했다. 1980년대 생으로 구성된 전시팀을 꾸리고, 비엔날레를 위한 설계도를 착실히 그려 나갔다. 그 첫 작업은 2013년에 열린 프리비엔날레. 전시 주제로 수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작업이었다. 왕후이, 알랭 바디우, 세실 빈터 등의 석학을 초청해 <예술의 보편성과 '동아시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노재운 배영환 안은미 파트타임스위트 등의 작가와 함께 워크숍을 개최했다. 100여 권의 관련 도서와 김실비 김영글 김익현 박창현 정은영 등의 작업, 김기영, 신상옥,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의 영화 스크리닝으로 구성된 작은 전시 <프리비엔날레 허브>도 꾸려졌다. 해가 바뀌고, 그의 첫 장편 극장 개봉작 <만신>이 발표됐다. 프리비엔날레와 <만신>에서 엿볼 수 있던 파편화된 키워드는 전시 주제로 집약됐다. 2014년 4월, 주제 '귀신 간첩 할머니'가 발표됐고, 사람들은 주제의 신선함에 크게 놀랐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단어의 조합을 비엔날레 주제로 제시한 적은 없었기 때문. 9월 한국 비엔날레 시즌의 포문을 연 미디어시티서울은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다"고 자평할 정도로 감독 스스로도 매우 만족했다. "참여 작가들이 이번 전시를 굉장히 좋아해 흠족하다. 올해 아시아권에서 본 전시 중 가장 훌륭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에릭 보들레르의 '퍼스널(personal)한 비엔날레'라는 표현도 기억에 남는다." 박찬경은 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인 감독 선임을 꼽았다. 감독이 상주하면서 준비 과정의 여러 변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 "미디어시티서울은 한국작가의 참여 비율이 다른 비엔날레보다 높았다. 한국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고, 그 과정의 즐거움 덕에 전시의 퀄리티가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그는 전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이라 느낄 정도로 큐레이터로서 배운 점도 많지만,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공적 자금을 사용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당분간은 작가 활동에만 매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1월 런던 이니바(Iniva)에서 영국 첫 개인전 <파경>을 개최, <신도안> <만신> 등의 대표작과 <작은 미술사>라는 신작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감독이라는 타이틀도 지속해 나간다. 시나리오 작업을 끝낸 공포영화가 투자자를 기다리는 중이다. / K



박찬경은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미국
칼아트(CalArts) 대학원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금호미술관,
삼지아트스페이스,
아틀리에에르메스, PKM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에르메스재단미술상(2004)을
수상했다.

